



동지 이야기

강 욱
자유기고가

다사다난했던 무자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기축년(己丑年) 새 해가 밝아오기 시작한다. 그래서인지 열두 달 중에서도 12월은 유독 아쉬움이 더하면서도 기쁨이 충만한 달이다.

12월에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절기인 동지(冬至)가 있다. 동지는 한국에서 지키는 24절기 가운데 스물두 번째 절기로서 음력으로는 11월에 들고 양력으로는 12월 22일경이 된다. 이때부터 짧아졌던 해가 다시 길어진다고 하여 ‘작은 설’이라고도 한다. 절기 순서상으로는 대설(大雪)의 다음이며 소한(小寒)의 앞이다.

동지는 음력 11월 초순에 들면 ‘애동지’, 중순에 들면 ‘중동지’, 그믐께 들면 ‘노동지’라고 하는데, 이는 동지가 드는 시기에 따라 달리 부르는 말이다. 동지란 글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태양이 가장 남쪽으로 기울어져 밤의 길이가 일 년 중 가장 긴 날이다. 일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 음이 극에 이르지만, 이 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는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다.

고대인들은 동지를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축제를 벌여 태양신에 대한 제사를 올렸다. 중국 주(周)나라에서 동지를 설로 삼은 것도 이 날을 생명력과 광명의 부활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역경의 복괘(復卦)를 11월, 즉 자월(子月)이라 해서 동짓달부터 시작한 것도 동지와 부활이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동짓날 풍습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팔죽을 쑤어 먹는 일이다. 팔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團子)를 만들어 넣어 끓인다.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만들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부른다. 팔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리고 각 방과 장독,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담아 놓았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는다. 동짓날의 팔죽은 시절식(時節食)의 하나이면서 신앙적인 뜻을 지니고 있다.

즉, 팔죽에는 축귀(逐鬼)하는 기능이 있다고 보았다. 집안의 여러 곳에 놓는 것은 악귀를 모조리 쫓아내기 위함이었고, 사당에 놓는 것은 천신(薦新)의 뜻을 위함이었다. 팔은 색이 붉어 양색(陽色)이므로 음귀(陰鬼)를 쫓는 데에 효과가 있다고 믿었으며, 실제 민속적으로 널리 활용되었다.

예로부터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물에 팔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했다. 또 사람이 죽으면 팔죽을 쑤어 상가에 보내는 관습이 있다. 이는 상가에서 악귀를 쫓기 위한 것이며, 동짓날에 팔죽을 쑤어 사람이 드나드는 대문이나 문 근처의 벽에 뿌리는 것 역시 악귀를 쫓는 주술행위의 일종이다.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나 재앙이 있을 때에도 팔죽, 팔떡, 팔밥을 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동짓날에도 특이하게 애동지에는 팔죽을 쑤지 않았다고 한다.

팔죽과 관련해서 중국에는 이런 설화가 전해오고 있다. 옛날 공공씨라는 사람이 재주 없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그 아들이 동짓날 숨져 역귀가 되어 해를 끼쳤다. 그 아들이 생전에 팔을 두려워했으므로 동짓날 팔죽을 쑤어 물리쳤다는 내용이다. 동지팔죽은 이웃에 돌려가며 서로 나누어 먹기도 한다.

한편, 동짓날 관상감(觀象監)에서는 새해의 달력을 만들어 궁에 바치면 나라에서는 ‘동문지보’라는 어새(御璽: 옥새)를 찍어 백관에게 나누어주었다. 각사(各司)의 관리들은 서로 달력을 선물하였으며, 이조(吏曹)에서는 지방 수령들에게 표지가 파란 달력을 선사하였다. 이 날부터 태양이 점점 오래 머물게 되어 날이 길어지므로 한 해의 시작으로 보고 새 달력을 만들어 가졌던 것이다.

이 뿐만 아니었다. 동지 무렵이 되면 제주목사는 특산물로서 굴을 상감에게 진상하였다. 궁에서는 진상 받은 굴을 대묘(大廟)에 올린 다음에 여러 신하에게 나누어주었고, 멀리에서 바다를 건너 굴을 가지고 상경한 섬사람에게는 그 공로를 위로하는 사찬(賜餐)이 있었으며, 또 포백(布帛) 등을 하사하였다.

보통 동짓날하면 팔죽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궁에서는 동짓날 특별한 동지 절식을 행했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우유와 우유 죽(타락죽)이다. 또, 궁궐의 내의원에서는 동짓날이 되면 겨울철 내내 사용하기 위해 계피, 후추, 설탕, 꿀 등을 쇠가죽과 함께 폭 고아 고약(膏藥)

을 만들어 진상했다고 한다. 이 약은 전약(煎藥)이라 하였다. 현대의 고약이 여기에서 전래된 것이다.

옛 조상들은 동짓날의 날씨 또한 중요히 여겼다. 동짓날 일기가 온화하면 다음해에 질병이 많아 사람이 죽을 징조이고, 반대로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우면 풍년이 들 징조라고 하였다.

동지 때쯤이면 ‘동지한파’라는 강추위가 온다. 과거엔 겨울 방학을 앞둔 학생들을 동원해 대대적인 보리밭기를 하기도 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동짓날 한겨울 기나긴 밤에는 새해를 대비해 복조리와 복주머니를 만들었다. 복조리는 산죽을 찌와 사등분으로 쪼개어 햇볕에 말리고 물에 담근 뒤 그늘에서 건조시켜 만든다. 쌀에 든 돌이나 이물질을 가려낼 때 사용하는 복조리는 새해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복을 사라며 “복 조리 사려.”를 외치며 다녔다. 복조리를 부엌 부뚜막이나 벽면에 걸어두고 한해의 복이 가득 들어오기를 기원했다.

겨울의 한 가운데에 들어 있는 동지는 설 다음 가는 작은설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 유풍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 ‘동짓날 새알심을 자기 나이만큼 먹어야 몸이 건강해진다.’ ‘동짓날에 팥죽을 먹으면 감기를 앓지 않는다’는 말이 전해진다. 🍲

